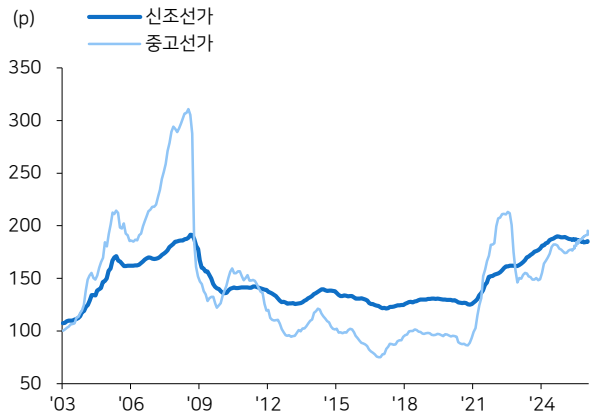
2026. 1. 26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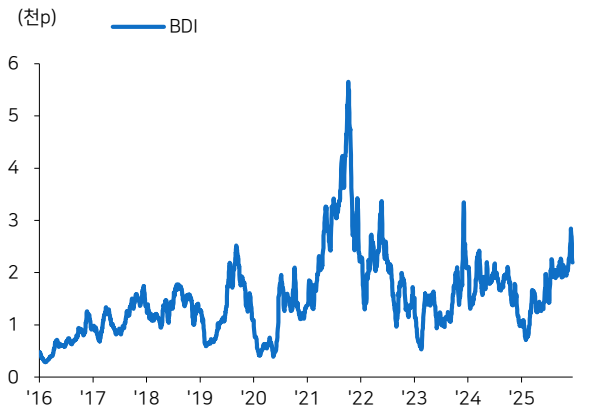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8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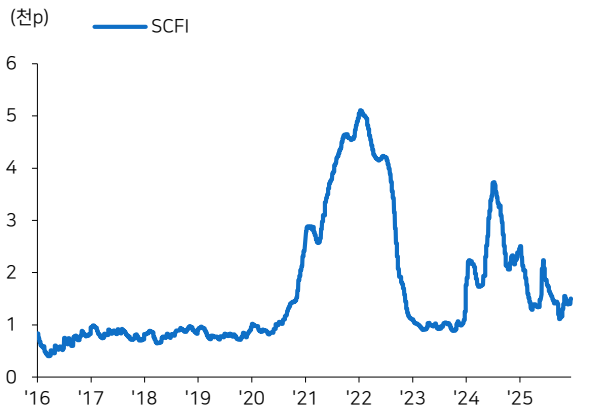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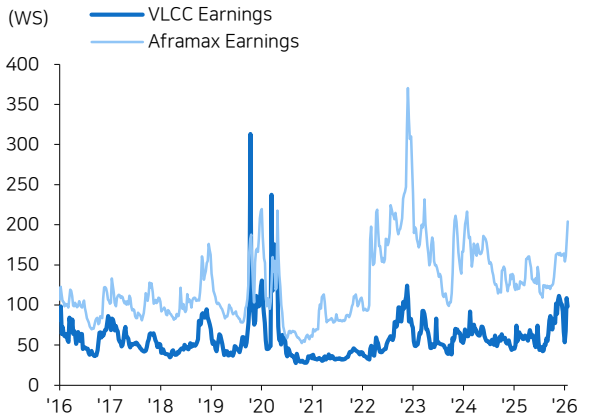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67.0p (-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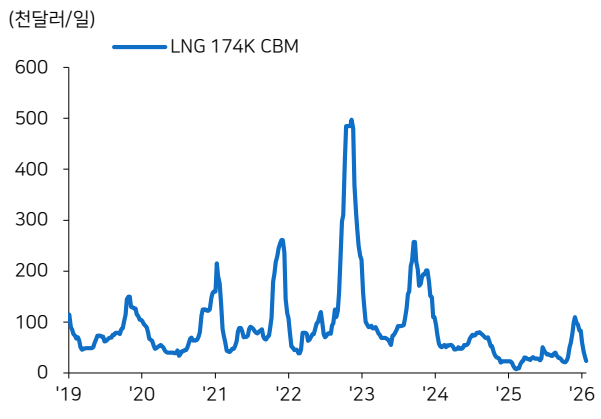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57.9p (-116.3p WoW)



VLCC Spot Rate 98.4WS (-10.1p WoW)



LNG Spot 운임 23.5천달러 (-9.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 **뉴시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 입찰을 앞두고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잠수함 건조 역량을 확인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빅터 페델리 장관에게 CPSP 제안 잠수함의 설계 · 생산 과정과 대형 조선 인프라를 소개하고, 산업기술혜택(ITB)과 연계한 투자 · 고용 효과를 설명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은 온타리오를 포함한 캐나다 지역 협력 확대와 현지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Buy Canadian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협력을 강화하며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고 전해짐. (https://buly.kr/H6jEELe)

산업부, K-조선 상생금융 출범...4,000 억 보증 프로그램 마련 — **뉴시스**

조선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 ·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해짐. 이번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2.4%포인트 금리 인하와 최대 3년 대출이 지원된다고 알려짐. 이는 민관이 함께 참여한 원팀 협력 사례로, 해당 상생금융 모델을 동남권 조선 밀집 지역과 중소 조선 · 기자재 업체 전반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FWUPVgY)

인도 조선업 '혁신' HD 현대·머스크·DP 월드 투자 가속 — **더구루**

HD현대와 Maersk, DP World, MSC 등 글로벌 메이저 선사 · 조선 기업들이 인도 조선 · 해양 산업에 수십억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하며 인도의 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짐. HD한국조선해양은 인도 Tamil Nadu 주 Tuticorin에 약 20억달러를 투자한 초대형 조선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Maersk 자회사 APM Terminals, DP World, MSC도 항만 확장과 공급망 · 선대 · 인력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짐. 이는 인도 정부가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을 통해 세계 5대 조선 · 해양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지원책을 추진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도됨. (https://buly.kr/15QI0gn)

John Inglessis expands into suezmax tankers with HD Hyundai newbuildings — **TradeWinds**

그리스 선주 JHI Steamship가 케이조선에서 aframax 유조선 3척을 발주한 데 이어 HD현대삼호에서 157,000dwt급 suezmax 유조선 2척을 추가로 계약하며 신조 발주를 확대했다고 보도됨. 해당 suezmax 2척은 2028년 4분기와 2029년 2분기 인도 예정이며, 척당 가격은 약 8,500만달러 수준의 일반 연료 추진선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짐. JHI Steamship은 최근 3개월간 약 4억달러를 투입해 유조선 신조를 진행하며, 장차 유조선 선대를 총 14척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짐. (https://buly.kr/ChqIkfx)

IMO chief open to compromise to secure green goals — **TradeWinds**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Arsenio Dominguez가 해운 탈탄소 전략 교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미국을 포함한 주요 당사국들과 협의를 시작하며 2050년 전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됨. 미국은 산업 전반 탄소 부과금과 넷제로 펀드에 강하게 반대해 왔고 이로 인해 논의가 1년 이상 지연됐으나, 국제해사기구 탈퇴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으며 의사결정기구 재선과 분담금 납부 사실도 확인됐다고 알려짐. Dominguez는 4월 환경보호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LNG 전환연료 논란을 포함해 회원국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환경 규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짐. (https://buly.kr/2qZrp4J)

Glenfarne reveals series of deals for Alaska LNG project — **Upstream**

Glenfarne Group이 Worley를 EPCM으로 하는 예비 계약을 체결하며 Alaska LNG 1단계 파이프라인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 해당 프로젝트는 2028년 파이프라인 완공과 2029년 첫 가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짐. Glenfarne Group은 ExxonMobil, Hilcorp 가스 공급 계약과 ENSTAR Natural Gas Company, Donlin Gold Mine 오프테이크 의향서, Baker Hughes 및 Posco International 협력을 통해 사업 실행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됨. (https://buly.kr/EdudXZ6)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